

한국-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

- 곽성일** 경제안보전략실장
sikwak@kiep.go.kr
- 정재완**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
jwcheong@kiep.go.kr
- 신민금**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
mgshin@kiep.go.kr
- 김제국**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
jegook@kiep.go.kr



차 례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2. 조사 및 분석 결과
3. 정책 제언
4. 부록

주요 내용

- ▶ 메콩지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로 한국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지를 검토
 - 메콩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진출 확대 또는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내 다국적 기업 및 현지 기업과의 무역 확대 필요
- ▶ 아세안 역내외로부터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에 차이 존재
 -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지역가치사슬(RVC) 참여는 더뎠고,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
 -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하면서 2021년 RVC 비중 증가
- ▶ 한국기업들은 현지 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,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, 현지로부터 조달 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
 -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응답
- ▶ 안정적인 한-아세안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한-메콩 협력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
 - 메콩지역 위험 상황 평가 및 대응 매뉴얼 구축
 - '메콩-한국 소사이어티'(가칭)를 설치하여 한국과 메콩의 협력에 있어 한-아세안센터 같은 국제기구로 육성
 - 양자간 FTA 및 RCEP 활용률 제고를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
 - 안정적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정책 실효성 제고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● 메콩지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로 한국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지를 검토

-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·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(GVC)의 핵심으로 부상
 - 미국, 중국, 일본 등 주요국들은 메콩지역과 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
 -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한-메콩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
- 미래 협력 대상지인 메콩지역에서 현재 미국, 중국, 일본 등 경쟁국들이 가치사슬 연계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
- 베트남에 집중된 한국의 무역과 투자 구조를 메콩지역으로 확산할 방안을 발굴
- 한국의 대(對)메콩 협력 방식을 양자협력 방식에서 다자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양 지역 간 또는 역내 가치사슬 연계 방안 모색

표 1. 주요국의 대메콩지역 협력의 특징 비교

	미국	중국	일본
주요 배경 및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반공(anti-communist), 중국 견제 등 외교·안보적 동인 • 중국의 태평양과 인도양 진출 억제 • 미국 중심질서 수호(규칙기반 시장질서), LNG 수출 확대와 경제적 관여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메콩지역 국가와의 협력에서 주도권 확대 • 중국 위협론 불식과 국제 이미지 제고 • 중국 서남지역의 대외개방과 경제발전 에 전략적 활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메콩지역 급부상에 따른 신흥시장 개척 • 일본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글로벌 가치사슬(GVC) 구축 • 중국 리스크 보완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• 외교적 우호환경 조성
주요 특징	① 경제적 요인보다 외교·안보적 요인 중시 ② 민주주의 성향에 따른 관여 차등 ③ 뜻을 같이 하는(like-minded) 국가와 삼각협력을 통해 이니셔티브 지속 ④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 등 중점	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실리적 협력에 집중 ② 최근 협력 분야와 방식 다양화 ③ 중국기술과 표준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프라 연결 추진 ④ 중국주도 기금 등 전폭적인 자금 지원과 투자 확대	① 자국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현지 진출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연계 ② 프로젝트 간 연결성 중시 ③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라는 확실한 목적 ④ 중장기적 관점 ⑤ 지역 이해관계자, ADB, 신크랭크, 이니셔티브 등과 협력 또는 연계

자료: 곽성일 외(2020), 『주요국의 대메콩 협력 현황 및 한-메콩 협력 발전 방향』, p. 145, [표 3-22] 재인용.

2. 조사 및 분석 결과

1) 메콩지역의 GVC 참여 현황과 구조변화 전망

① 외국인직접투자의 수출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

- FDI 유입과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, 대체로 양의 관계로 추정되었고, 그 외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FTA의 추정계수는 주로 음의 관계가, 상대적 선진국이 상대적 개도국에 제공하는 우대조치인 특혜무역협정(PTA)은 주로 양의 관계로 추정

표 2. 메콩지역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요약

독립변수	종속변수			중간재 수출부가가치			최종재 수출부가가치		
	전체	경공업	전자·중화학	전체	경공업	전자·중화학	전체	경공업	전자·중화학
FDI	+***	+***	-***	-***	+***	-***	+***	+***	+***
ODI	+***	+***	+***	+***	+***	+***	-***	+	+***
FTA	-***	-***	+	-***	-***	+	-***	-***	+***
PTA	+***	+	+***	+***	-***	+***	+***	+***	+***
통제변수	수출국*수입국 교호항, 수출국*연도 교호항, 수입국*연도 교호항, 연도더미								

주: +는 양의 추정계수, -는 음의 추정계수, *, **, ***은 10%, 5%, 1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.
 자료: 저자 작성.

- 캄보디아를 제외한 메콩 3개국의 수출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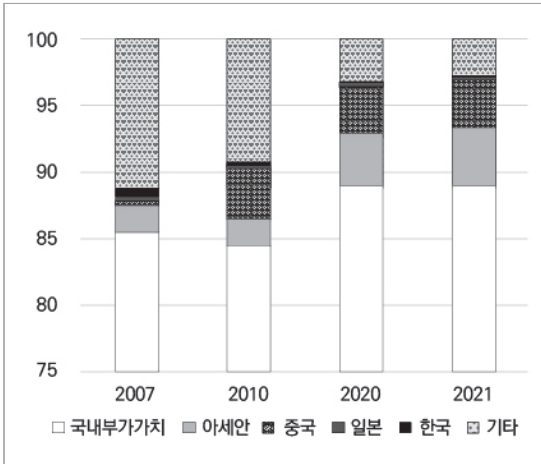
② 메콩 각국의 GVC 및 RVC 참여 현황 분석

- 아세안 역내외로부터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에 차이 존재(부표 4~8 참고)
 -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RVC 참여는 더뎠고,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
 - 캄보디아는 2020년까지 GVC에 빠르게 참여하고 있었고, 라오스는 GVC보다는 RVC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
- 2021년 자료에서는 메콩 4국 모두에서 RVC 참여 비중을 큰 폭으로 확대
 -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했기 때문으로 이해

● 총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비중은 메콩지역 국가별로 상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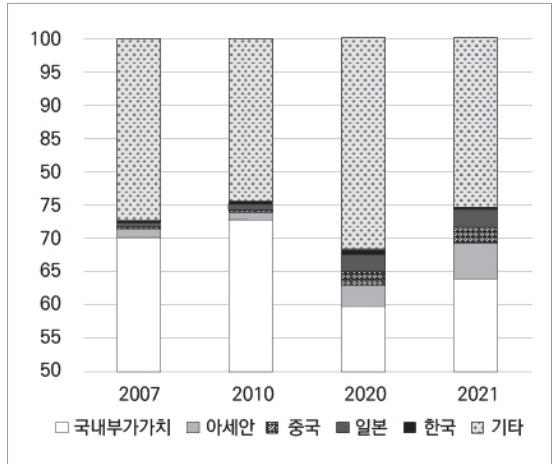
- 라오스는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, 베트남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
- 메콩 4국은 공통적으로 저위기술제조업과 중고위기술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산업 대비 낮은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 시현

그림 1. 해외부가가치의 라오스 수출에 대한 기여도 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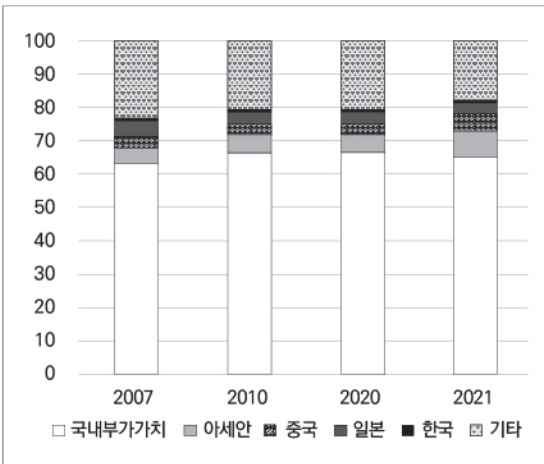
자료: ADB-MRIO 각 연도 자료 활용하여 작성.

그림 2. 해외부가가치의 캄보디아 수출에 대한 기여도 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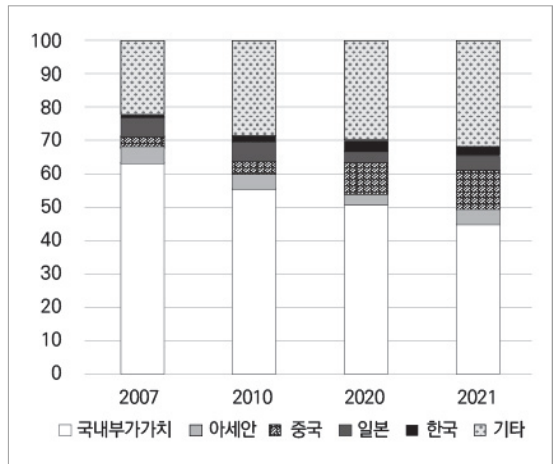
자료: ADB-MRIO 각 연도 자료 활용하여 작성.

그림 3. 해외부가가치의 태국 수출에 대한 기여도 (단위: %)



자료: ADB-MRIO 각 연도 자료 활용하여 작성.

그림 4. 해외부가가치의 베트남 수출에 대한 기여도 (단위: %)



자료: ADB-MRIO 각 연도 자료 활용하여 작성.

2)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

① 메콩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및 생산구조 현황과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

- 한국기업들은 현지 기업의 품질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,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, 현지로부터 조달 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
 - 미·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메콩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(공급망)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자의 40% 이상을 차지
 - 2~3년 뒤에는 미·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-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과 전망에 관해 조사한 결과, 응답한 메콩 진출 한국기업 중 62%만이 RCEP 타결을 인지
 - 기업들은 RCEP 활용을 위해 비대면 FTA 컨설팅 제공,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, FTA 활용 지원정책 정리·배포, 해외 통관 애로 해소, 비관세 분야 대응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

② 한국정부의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

- 한국기업들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활용 간에 약한 상관관계를 드러냄.
 - 한국기업은 지원방안을 인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
- 기(既) 지원방안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향
 - 해외법인 설립 지원과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.
 - 관련된 지원사업을 분리해서 제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패키지화하여 제공한다면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.
-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응답
 - 한국기업들이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할 때 메콩지역 기업들의 역량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인프라 충족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

3. 정책 제언

1) 안정적인 한-아세안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한-메콩 협력 방향

① 신뢰구축을 위한 일관된 협력정책 추진

- 2019년 공표된 '한강-메콩강 선언'도 포용, 경험공유를 통한 번영, 평화를 강조했고, 다행히 2022년 공표한 '한-아세안 연대구상(KASI)'도 협력 원칙으로 포용, 신뢰, 호혜를 제시

② 경제협력 부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

-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역내 기존 질서체계의 유지 및 공동이익을 모색하고 전통적·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 평화 유지가 중요

- 양 지역 국민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

③ 메콩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방안 마련

④ 메콩지역의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

2) 안정적인 한-아세안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한-메콩 협력 방안

① ODA 자금을 활용하여 메콩지역 국별로 감염병 대응, 기후재앙, 경제위기 등 위험 상황평가 및 대응 매뉴얼을 메콩지역 국가와 함께 구축하고 한국기업도 활용

- 메콩지역 국가들 자체가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, 최근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

② 메콩지역을 전담할 싱크탱크의 현지 설립을 고려

- 메콩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한계는 실효성 있는 양 지역 간 가치사슬 연계방안을 발굴하는 데 한계로 작용

-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콩 현지에 한국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설치하고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채널 및 현지정부와 소통 채널로 활용

③ '메콩-한국 소사이어티'(가칭) 설치

- 한국과 메콩의 협력에 있어 '한-아세안센터'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로 육성할 필요
 - 특히 양 지역의 정부와 현지에 나가 있는 민간기구, 공공기관 대표 사무소, 지자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다면 협력의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음.
 - 양 지역 간 경제·산업 및 사회·문화 교류 그리고 교육·기술 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

④ 양자간 FTA 및 RCEP 활용률 제고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

- 메콩지역 경제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활동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므로 시장 개방이 매우 중요

⑤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 지원

- 메콩지역 국가들은 GVC 참여를 위해 강압적 정책으로 기술이전 요구를 늘리고 있음을 확인
 - 메콩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부문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음.
- 메콩지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해 메콩지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안보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을 확대

⑥ 안정적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

-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사전에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됨.
 -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기업들은 특정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활용하므로 지원정책의 패키지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

⑦ 전략적 ODA 활용과 미·일·중 등 메콩 관여국과 연대를 통한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을 추진

- 미국, 일본, 중국 등 주요 메콩 관여국과 연대를 통해 메콩지역의 연계성 개선과 인프라 개발을 주도할 필요
 - 설문조사에서 보았듯이 우리 기업들도 메콩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고,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인프라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을 보유 **KIEP**

부록

부표 1. 메콩지역 총수출부가가치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

독립변수	종속변수	전체 산업 총수출부가가치	경공업 총수출부가가치	전자·중화학 제조업 총수출부가가치
FDI		0.0000938*** (0.0000015)	0.000135*** (0.0000065)	-0.0000657*** (0.00000317)
ODI		0.0000839*** (0.00000492)	0.000733*** (0.0000701)	0.00176*** (0.0000285)
FTA		-0.256*** (0.00518)	-0.410*** (0.00845)	0.0179 (0.0115)
PTA		0.361*** (0.0149)	0.0265 (0.0245)	0.550*** (0.0506)
연도:	2008	0.0556* (0.0289)	0.335*** (0.0481)	0.315 (0.339)
	2009	0.251*** (0.0301)	0.264*** (0.0499)	0.361 (0.407)
	2010	0.475*** (0.0288)	0.396*** (0.0488)	0.397 (0.406)
	2011	0.467*** (0.0281)	0.562*** (0.0471)	0.531 (0.357)
	2012	0.601*** (0.0273)	0.647*** (0.0466)	0.447 (0.342)
	2013	0.564*** (0.0267)	0.727*** (0.0459)	0.481 (0.344)
	2014	0.537*** (0.0261)	0.900*** (0.0449)	1.061*** (0.299)
	2015	0.337*** (0.0268)	0.706*** (0.0468)	0.129 (0.337)
	2016	0.424*** (0.0263)	0.969*** (0.0449)	0.667** (0.311)
	2017	0.588*** (0.0255)	1.178*** (0.0433)	0.844*** (0.304)
	2018	0.685*** (0.0251)	1.418*** (0.0422)	3.105*** (0.280)
	2019	0.761*** (0.0241)	1.376*** (0.0413)	2.914*** (0.277)
2020	0.752*** (0.0243)	1.274*** (0.0416)	3.244*** (0.276)	
2021	0.729*** (0.0241)	1.523*** (0.0406)	3.373*** (0.275)	
관측치		24,288	3,642	3,626

주: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편차를, *, **, ***은 10%, 5%, 1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.

연도를 제외한 수출국*수입국 교호항, 수출국*연도 교호항, 수입국*연도 교호항의 추정 결과는 생략함.

자료: 저자 작성.

부표 2. 메콩지역 중간재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

독립변수	종속변수	전체 산업 총수출부가가치	경공업 총수출부가가치	전자·중화학 제조업 총수출부가가치
FDI		-0.000131*** (0.00000176)	0.0000955*** (0.00000904)	-0.0000984*** (0.0000366)
ODI		0.000181*** (0.00000641)	0.00215*** (0.000125)	0.00279*** (0.000039)
FTA		-0.155*** (0.00745)	-0.689*** (0.0150)	0.166*** (0.0162)
PTA		0.0812*** (0.0234)	-0.643*** (0.0520)	0.472*** (0.0740)
연도:	2008	0.0740 (0.0552)	0.345* (0.205)	1.141** (0.518)
	2009	0.290*** (0.0552)	0.611*** (0.201)	0.772 (0.597)
	2010	0.307*** (0.0537)	0.713*** (0.205)	0.347 (0.603)
	2011	0.225*** (0.0538)	0.797*** (0.191)	0.434 (0.538)
	2012	0.528*** (0.0518)	0.869*** (0.187)	0.914* (0.511)
	2013	0.453*** (0.0501)	1.428*** (0.175)	0.569 (0.537)
	2014	0.522*** (0.0484)	1.707*** (0.169)	1.058** (0.499)
	2015	0.349*** (0.0493)	1.608*** (0.173)	0.944* (0.513)
	2016	0.452*** (0.0486)	1.981*** (0.169)	1.988*** (0.478)
	2017	0.568*** (0.0474)	2.120*** (0.166)	2.122*** (0.474)
	2018	-0.262*** (0.0495)	2.354*** (0.163)	2.452*** (0.458)
	2019	0.660*** (0.0450)	2.737*** (0.160)	2.107*** (0.464)
2020	0.429*** (0.0455)	2.531*** (0.160)	2.328*** (0.460)	
2021	0.171*** (0.0457)	2.670*** (0.159)	2.015*** (0.459)	
관측치		23,928	3,642	3,491

주: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편차를, *, **, ***은 10%, 5%, 1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.

연도를 제외한 수출국*수입국 교호항, 수출국*연도 교호항, 수입국*연도 교호항의 추정 결과는 생략함.

자료: 저자 작성.

부표 3. 메콩지역 최종재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

독립변수	종속변수	전체 산업 총수출부가가치	경공업 총수출부가가치	전자·중화학 제조업 총수출부가가치
FDI		0.0000207*** (0.000003.49)	0.0000430*** (0.00000990)	0.0000340*** (0.00000697)
ODI		-0.0000539*** (0.000007.78)	0.00002.86 (0.00009.91)	0.000702*** (0.0000446)
FTA		-0.342*** (0.00753)	-0.312*** (0.0107)	0.0827*** (0.0175)
PTA		0.474*** (0.0213)	0.283*** (0.0307)	0.596*** (0.0715)
연도:	2008	-0.211*** (0.0383)	0.326*** (0.0606)	-0.958** (0.471)
	2009	0.289*** (0.0383)	0.236*** (0.0618)	-0.141 (0.583)
	2010	0.734*** (0.0361)	0.470*** (0.0598)	0.469 (0.569)
	2011	0.716*** (0.0351)	0.794*** (0.0572)	0.429 (0.505)
	2012	0.698*** (0.0346)	0.828*** (0.0571)	-0.122 (0.520)
	2013	0.737*** (0.0339)	0.872*** (0.0567)	0.515 (0.458)
	2014	0.593*** (0.0337)	1.019*** (0.0560)	1.120*** (0.374)
	2015	0.375*** (0.0350)	0.798*** (0.0588)	-0.672 (0.479)
	2016	0.451*** (0.0341)	1.080*** (0.0558)	-1.108** (0.516)
	2017	0.641*** (0.0328)	1.317*** (0.0538)	-0.700 (0.469)
	2018	1.169*** (0.0312)	1.425*** (0.0524)	3.046*** (0.359)
	2019	0.918*** (0.0306)	1.325*** (0.0517)	3.096*** (0.348)
2020	1.035*** (0.0308)	1.263*** (0.0519)	3.553*** (0.347)	
2021	1.154*** (0.0304)	1.627*** (0.0505)	3.755*** (0.346)	
관측치		23,718	3,642	3,611

주: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편차를, *, **, ***은 10%, 5%, 1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.
연도를 제외한 수출국*수입국 교호항, 수출국*연도 교호항, 수입국*연도 교호항의 추정 결과는 생략함.
자료: 저자 작성.

부표 4. 캄보디아의 RVC 참여율 추이

	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			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			GVC 참여도 (a+d)	RVC 참여도 (c+f)	RVC 비중
	합계 (a=b+c)	아세안역외 (b)	아세안역내 (c)	합계 (d=e+f)	아세안역외 (e)	아세안 역내 (f)			
2007	26.7%	25.8%	0.9%	10.1%	8.3%	1.8%	36.8%	2.7%	7.3%
2010	24.2%	23.4%	0.8%	10.7%	8.9%	1.8%	34.9%	2.7%	7.6%
2015	24.6%	23.7%	1.0%	11.1%	8.1%	3.0%	35.8%	4.0%	11.1%
2016	24.3%	23.2%	1.1%	12.0%	8.2%	3.8%	36.4%	5.0%	13.7%
2017	24.2%	23.1%	1.1%	12.6%	8.5%	4.2%	36.9%	5.3%	14.4%
2018	30.8%	29.0%	1.7%	12.4%	9.6%	2.8%	43.2%	4.6%	10.6%
2019	33.1%	30.6%	2.5%	7.4%	4.2%	3.3%	40.5%	5.8%	14.3%
2020	36.8%	34.3%	2.4%	9.5%	6.9%	2.5%	46.2%	5.0%	10.8%
2021	31.8%	29.0%	2.8%	15.3%	3.8%	11.5%	47.1%	14.4%	30.5%

주: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(DVX)은 타국의 수출에 내재된 자국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며,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(FVA)은 자국 수출에 내재된 타국의 부가가치를 의미한다.

자료: ADB-MRIO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.

부표 5. 라오스의 RVC 참여율 추이

	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			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			GVC 참여도 (a+d)	RVC 참여도 (c+f)	RVC 비중
	합계 (a=b+c)	아세안역외 (b)	아세안역내 (c)	합계 (d=e+f)	아세안역외 (e)	아세안 역내 (f)			
2007	10.7%	9.3%	1.4%	23.2%	18.3%	4.9%	33.9%	6.3%	18.6%
2010	11.8%	10.5%	1.4%	20.7%	16.7%	4.0%	32.6%	5.4%	16.6%
2015	9.0%	8.0%	1.0%	21.4%	15.2%	6.2%	30.4%	7.2%	23.6%
2016	8.3%	7.3%	0.9%	23.2%	15.9%	7.3%	31.5%	8.2%	26.1%
2017	8.5%	7.6%	0.9%	24.6%	17.4%	7.2%	33.2%	8.1%	24.4%
2018	10.7%	8.2%	2.5%	27.4%	16.5%	10.9%	38.1%	13.4%	35.2%
2019	12.7%	9.7%	3.1%	19.3%	7.7%	11.6%	32.0%	14.6%	45.7%
2020	8.5%	5.9%	2.6%	20.8%	9.8%	10.9%	29.2%	13.5%	46.3%
2021	7.8%	5.3%	2.5%	27.8%	9.9%	17.9%	35.6%	20.4%	57.3%

주: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(DVX)은 타국의 수출에 내재된 자국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며,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(FVA)은 자국 수출에 내재된 타국의 부가가치를 의미한다.

자료: ADB-MRIO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.

부표 6. 태국의 RVC 참여율 추이

	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			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			GVC 참여도 (a+d)	RVC 참여도 (c+f)	RVC 비중
	합계 (a=b+c)	아세안역외 (b)	아세안역내 (c)	합계 (d=e+f)	아세안역외 (e)	아세안 역내 (f)			
2007	26.4%	23.5%	2.9%	15.6%	13.0%	2.6%	41.9%	5.4%	13.0%
2010	25.2%	21.6%	3.6%	14.8%	11.4%	3.3%	40.0%	7.0%	17.4%
2015	21.4%	18.4%	3.1%	14.7%	12.2%	2.5%	36.2%	5.6%	15.5%
2016	19.9%	17.1%	2.8%	15.0%	12.4%	2.7%	34.9%	5.5%	15.7%
2017	20.7%	16.6%	4.1%	15.8%	12.3%	3.6%	36.6%	7.7%	21.0%
2018	25.8%	22.7%	3.1%	15.9%	13.7%	2.2%	41.7%	5.3%	12.7%
2019	23.2%	19.4%	3.8%	12.8%	10.1%	2.8%	36.1%	6.6%	18.3%
2020	23.3%	19.6%	3.7%	12.0%	9.3%	2.7%	35.3%	6.4%	18.1%
2021	27.4%	22.2%	5.2%	12.6%	9.0%	3.6%	39.9%	8.7%	21.8%

주: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(DVX)은 타국의 수출에 내재된 자국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며,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(FVA)은 자국 수출에 내재된 타국의 부가가치를 의미한다.

자료: ADB-MRIO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.

부표 7. 베트남의 RVC 참여율 추이

	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			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			GVC 참여도 (a+d)	RVC 참여도 (c+f)	RVC 비중
	합계 (a=b+c)	아세안역외 (b)	아세안역내 (c)	합계 (d=e+f)	아세안역외 (e)	아세안 역내 (f)			
2007	30.6%	26.6%	4.1%	8.9%	7.3%	1.5%	39.5%	5.6%	14.2%
2010	36.5%	33.0%	3.5%	9.6%	8.4%	1.3%	46.1%	4.8%	10.4%
2015	31.3%	28.9%	2.4%	10.9%	9.8%	1.2%	42.2%	3.6%	8.4%
2016	38.5%	35.5%	3.0%	9.4%	8.7%	0.7%	47.9%	3.8%	7.8%
2017	36.9%	33.4%	3.5%	9.6%	8.8%	0.8%	46.5%	4.2%	9.1%
2018	39.4%	37.1%	2.2%	11.3%	10.3%	0.9%	50.6%	3.2%	6.3%
2019	41.6%	39.0%	2.6%	7.7%	6.6%	1.1%	49.3%	3.7%	7.4%
2020	41.7%	39.5%	2.2%	6.9%	5.9%	1.0%	48.6%	3.2%	6.6%
2021	46.8%	43.5%	3.3%	5.8%	4.9%	0.9%	52.5%	4.2%	8.0%

주: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(DVX)은 타국의 수출에 내재된 자국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며,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(FVA)은 자국 수출에 내재된 타국의 부가가치를 의미한다.

자료: ADB-MRIO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.